

오피니언

시론

무엇이 강대국이고 선진국인가



신호현 시인

연평해전 '전사자 예우' 순직처리 있을 수 없어 고속정 '철갑판' 만들어 전투공간 확보돼야 최소 5분내 출동 가능한 공군 대비시켜야 할 것

영화 '연평해전'은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었던 영화이다. 모든 영화가 관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이유가 있겠지만 '연평해전'은 이 나라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평화와 행복을 맛보기에 이 평화와 행복을 지켜주는 근본이 되는 우리의 군인들이 희생당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영화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진실을 바로 알아야 하고 우리와 대립하고 있는 북의 실상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6.25 전후 세대이다. 그래서 전쟁의 참상을 잘 알지 못한다. 전쟁을 직접 겪은 아버지 세대들이 전쟁 이야기를 하면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로 느끼고 '공산당을 바로 알아야 한다'고 하면 '예! 또 잔소리 하신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전쟁은 우리와 상관없고 자유와 평화는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서 저들의 달콤한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그들의 논리가 맞는 것 같아 그들을 동조하는 젊은이들도 보았다.

'연평해전'을 보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적 상황을 되풀이 하지 말자는 뜻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첫째는 연평해전 전사자들을 빨리 '전사자 예우'를 해야 한다. 13년이 지난 지금도 당당한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우리의 아들들을 단순히 '순직처리'하고 전사자 예우를 주저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우리는 월드컵 선수들을 '태극전사'라 한다. 운동 경기에서조차 전쟁에

비유해 '전쟁하는 군사'하며 뜨겁게 응원하고 넘어지면 뜨겁게 박수를 쳐서 일어나라 격려한다. 하물며 국가의 부름을 받고 목숨을 건 전쟁의 상황에서 총과 대포를 쏘다가 희생당했는데 순직이라니 이는 있을 수 없는 처사이다.

둘째는 영화를 보는 내내 전쟁에 쓰는 고속정을 왜 저렇게 만들었나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좌현이든 우현이든 군인들이 날아오는 탄환을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이다. 최소한 앉아서 총을 쏠 수 있을 정도의 높이는 철갑판으로 만들어 총탄을 피하며 전투할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 이순신 장군이 왜 거북선을 만들었을까? 적의 침투를 막고 적의 선진화된 조총으로부터 아군을 보호하려는 뜻이었을 것이다. 전쟁에서 한명 한명 병사의 목숨이 결국 우리의 군사력이고 국가의 보호력이 아닌가. 셋째는 교전 규칙이다. 물론 이는 연평해전 후 바꿨지만 적의 고속정이 NL 월선을 했을 때 이는 분명 그들이 알고 넘었을 것이기에 '침입 행위'이므로 경고사격 또는 위협사격을 통해 물어야 하는데 '차단기동'이 무엇인가. 또한 30분간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속에서 '전투기'는 무엇을 했는가? 영화속에서도 전투기가 이륙하는 장면은 나왔는데 전투기가 사격을 가하거나 전쟁 상황을 돕지 않고 있다. 적어도 서해도 동해도 아닌 '배반의 북해'를 지키는 우리는 최소 5분내 출동할 수 있는 공군을 대비시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영화를 보는 내내 '무엇이 강대국이고 선진국인가'를 깊이 생각해 봤다. 배불리 먹고 나만 잘 사는 것이 강대국이고 선진국인가. 나라가 존재하고 국민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불철주야 목숨 걸고 희생하는 우리의 아들딸들의 뜨거운 희생을 우리는 지켜만 볼 것인가. 미국이 한 병사의 죽음을 그토록 존경하고 배려하는 모습에서 강대국의 위상을 드러냈다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강대국이 못 되고 선진국이 못 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알 것 같다. 김학순 감독은 이 영화를 만들면서 가슴이 터져버리고 싶었을 것이다. 이 분동터지는 현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희생된 군인들의 넋을 높이 가리고 싶은 마음이 영화를 통해 뜨겁게 전달되어 왔다. 밤이 깊었다. 아니 새벽 두시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아들딸들은 전선을 지킨다.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녕을 지킨다면 우리는 그들의 희생을 '영웅'으로 높이 기려야 하고 십시일반 그 가족들을 우리가 돌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인구와 땅이 작지만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했다. GNP도 2만 5,000불이 넘었다. 그런데도 우리의 행복지수는 158개국 중 47위에 머물렀다. 우리가 서로 행복하려면 서로 존중과 존경, 그리고 배려가 있어야 한다. 더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은 그 영혼까지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반구대

'리멤버 727'

김병길 주필

백마(白馬)고지 전투는 국군 9사단과 중공군 3개 사단이 강원 철원군 북쪽 요충지를 놓고 1952년 10월 6일부터 10일간 치른 전투다. 휴전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포로교환 회담이 걸릴수록 중공군의 공세로 시작된 6·25 전쟁의 대표적인 고지 쟁탈전이었다.

고지의 주인이 10일간 무려 24번이나 바뀔 정도로 치열한 전투였지만 우리 군이 끝내 방어에 성공했다. 하지만 공중 폭격과 포격으로 고지는 완전 민등산이 되고 말았다. 그 모습이 마치 흰 말의 형상을 했다고 미군이 '화이트 호스'라 불러 '백마고지'가 됐다.

6·25 전쟁 정전(停戰)회담은 전쟁 발발 1년이 지난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시작해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체결될 때까지 꼬박 2년이 걸렸다. 본회담 159회에 부속회담만 해도 765회나 열리면서 총이 아닌 말로 싸우는 또 하나의 전쟁터가 됐다. 회담장 바깥에선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전투가 더욱 치열해졌다. 각 고지의 주인은 날마다 바뀌었다.

일시적 전쟁 중단상태인 정전은 '불안한 평화'를 뜻한다. 하지만 한반도 정전체제는 60여년이 지나면서 전쟁 방지와 평화 보장을 담보하는 '안정판 역할'을 해왔다. 이는 정전협정유지를 위한 군사적 보장장치(유엔사령부)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한미 군사동맹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6·25만 알고 정전일인 7·27을 모르면,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모르는 셈이다. 6·25에 6대륙 25개국이 참전했고, 거의 60개국 이 연관됐으나 '잊혀진 전쟁'이 되고 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참전 용사들과 희생자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매년 '리멤버 727' 행사를 열어 '끝나지 않은 전쟁'의 참뜻을 되새기고 있다.

정전협정 62주년, 강산이 여섯 번 변하는 동안 우리에게는 무엇이 변했나. 남북이 원해 남북으로 갈라진 것은 아닐 것이다. 지금 남북은 말로만 각자의 통일을 외치며 남 탓하기 바쁘다. 이처럼 무위(無爲)로 세월만 허송한다면 역사는 통일을 외면할 뿐이다.

배호 그림세상

월요광장

가계부채 대책, 근본적 해법도 고민해야

급속한 가계부채 증가가 우리 경제를 뒤흔들 수도 있는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핵심은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과 고정금리를 유도하는 등 가계대출이 상환 능력 안의 범위에서 부실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계부채 급증의 근본 원인은 그대로 둔 채 어정쩡하게 내놓은 응급 처방인 것 같아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가계부채는 이미 1천100조원을 넘

어선 것으로 추산돼 국내외 전문가들은 잇따라 그 위험성에 대해 경고음을 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에서 3.0%로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꼽기도 했다. 지난해부터 가계부채가 늘어난 근본 원인은 금리 인하와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대출심사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원리금 분할 상환과 고정금

리 대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지만 가계대출을 정상적 수준까지 억제하는 데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효과는 크지 않고 생계형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만 제도권 밖으로 내몰 가능성도 있다.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금리를 높이고 부동산대출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문제는 두 방안 모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준금리의 경우 내수 침체가 워낙 심각해 미국과의 엇박자를 감수하고 사상 최저로 내린 것이지만 말이다. 그렇다면 LTV,

DII 등 부동산대출 관련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하는데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고려할 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 같다. 하지만 이제는 가계부채의 규모와 방향성이 위험 수위에 도달한 만큼 부동산담보와 관련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 됐다. 빛이 늘더라도 대출자의 상환능력이 제고되면 큰 문제가 없는 만큼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중장기적 노력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연협뉴스

지성공인중개사

지성공인중개사는 신뢰와 양심을 추구합니다!

등록 허가번호 가-31-14-2801 대표 김은주

친절 상담 ☎ 052-265-0075

울산 남구 봉월로162번지(신정동)

직원구함 남·여 직원모집: 경력자 및 초보자 환영

★매물상담/접수환영★ [부동산 법률 및 경매상담]

처음부터 실전에 관한 모든 교육을 받을 수 있음

토지 / 상가 / APT 함께 하실분~!!

- 광고의 좋은물건 다량 보유 -

★ 수익형 상가 ★		★ 수익형 원룸 ★			★ 주택 ★	
<p>남구 달동 3층 상가주택</p> <p>대 211㎡, 건 495㎡</p> <p>상업지</p> <p>월 320만, 보 3,000만</p> <p>매 8억 9,000만</p>	<p>남구 신정동 7층 상가건물</p> <p>대 467㎡, 건 2,484㎡</p> <p>E/N 有, 상업지,</p> <p>대로변, 월 710만</p> <p>보 6억6천, 매 21억</p>	<p>중구 반구동 신축원룸</p> <p>대 217㎡, 건 367㎡</p> <p>상가 116㎡, 주인 132㎡</p> <p>월 410만, 보 1억</p> <p>매 9억 5천</p>	<p>남구 삼산동 신축원룸</p> <p>대 257㎡, 건 469㎡</p> <p>주인 148㎡</p> <p>월 540만, 보 1억5천만</p> <p>매 11억</p>	<p>남구 신정동 신축원룸</p> <p>대 158㎡, 건 350㎡</p> <p>주인 115㎡</p> <p>월 395만, 보 2,600만</p> <p>매 7억</p>	<p>남구 무거동 나대지</p> <p>대지 194㎡</p> <p>매 2억6,000만</p>	<p>중구 반구동(반구시장부근) 주택</p> <p>대 169㎡, 건 153㎡</p> <p>월 90만, 보 6,700만</p> <p>매 3억 7,000만</p>
<p>남구 달동 4층 상가주택</p> <p>대 165㎡, 건 494㎡</p> <p>상업지</p> <p>월 405만, 보 1억</p> <p>매 7억 3,000만</p>	<p>중구 반구동(반구시장 내) 상가주택</p> <p>대 250㎡, 건 422㎡</p> <p>월 120만,</p> <p>보 1억8,000만</p> <p>매 8억 5,000만</p>	<p>중구 반구동 신축원룸</p> <p>대 155㎡, 건 304㎡</p> <p>상가1+주인 92㎡</p> <p>월 370만, 보 8,500만</p> <p>매 8억3천만</p>	<p>남구 삼산동 원룸</p> <p>대 271㎡, 건 496㎡</p> <p>월 392만,</p> <p>주인 149㎡, E/N 有</p> <p>보 2억4천, 매 12억</p>	<p>남구 신정동 신축원룸</p> <p>대 195㎡, 건 426㎡</p> <p>주인 135㎡, E/V(有)</p> <p>월 467만, 보 1억 4,000만</p> <p>매 9억 5천</p>	<p>남구 신정동 단독주택</p> <p>대 195㎡, 건 99㎡</p> <p>매 3억 8,000만</p>	<p>울주군 두동면 만화리 자연농지</p> <p>답 539㎡, 매 9,000만</p>
<p>남구 옥동 상가주택</p> <p>대 241㎡, 건 127㎡</p> <p>월 185만</p> <p>보 1억7,000만</p> <p>매 8억6,000만</p>	<p>중구 반구동 상가주택</p> <p>대 208㎡, 건 732㎡</p> <p>대로변, 월 475만</p> <p>보 1억 4,300만</p> <p>매 14억 5,000만</p>	<p>중구 반구동 신축원룸</p> <p>대 203㎡, 건 386㎡</p> <p>주인 125㎡</p> <p>월 370만, 보 8,000만</p> <p>매 8억 5천만</p>	<p>남구 신정동 신축원룸</p> <p>대 221㎡, 건 495㎡</p> <p>주인 148㎡,</p> <p>월 550만, 보 1억3천만</p> <p>매 11억</p>	<p>남구 신정동 신축원룸</p> <p>대 162㎡, 건 355㎡</p> <p>주인 112㎡</p> <p>월 405만, 보 7,500만</p> <p>매 7억5천</p>	<p>남구 옥동 단독주택</p> <p>대 199㎡, 건 155㎡</p> <p>매 4억 5,000만</p>	<p>울주군 두동면 만화리 자연농지</p> <p>전 992㎡, 매 1억 6,500만</p>
					<p>중구 반구동 2층주택</p> <p>대 192㎡, 건 165㎡</p> <p>매 3억 5,000만</p>	<p>중구 남외동(소방서부근) 주택</p> <p>대 170㎡, 건 191㎡</p> <p>월 30만, 보 4,500억</p> <p>매 3억 7,500만</p>